



주 제:	“길, 진리, 생명”	“부활 제 5 주일”	2008년 4월 20일
복음 묵상:	[요한 14,1- 12]	[사도 6,1-7]	[1 베드 2,4-9]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입니다.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봉사하고 낮추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지극히 높은 분이셨지만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과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영광과 환호가 있는 길이 아니라 모욕과 십자가가 존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가난한 이들, 힘없는 약한 이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이들, 괴로워하며 슬픔에 우는 이들에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은 죄인들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 힘없는 약한 이들, 고통 받는 이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자비를 몸에 익히고, 드디어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자존심과 평안함을 버리는 사람,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자비롭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추구하지 않고, 이유가 있으면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서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들은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겨레, 그분이 차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1 베드로 2,9) 하느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 분께서 가신 길을 나의 삶 안에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지적(知的)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구체적인 삶 안에서 실천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김태형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성가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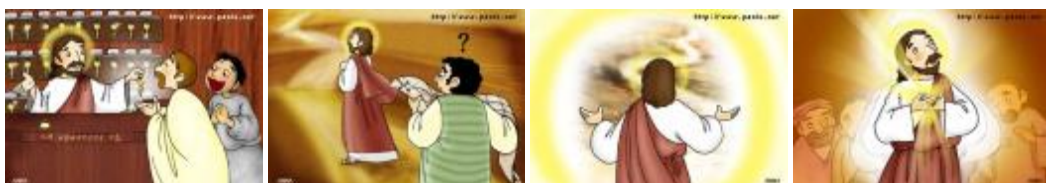
- **성가대 사진 촬영**을 못하신 대원들은 금주 (4/20) 교중 미사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촬영할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누락되신 가족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 미사후에 **악보정리**를 하고자 하오니, 모든 지난 악보는 빠짐없이 악보장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는 가족들은 미사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흥진** 매례사 자매님은 5월 5일 돌아올 예정으로 4월 11일 고국 방문을 떠납니다. 여행중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이 은순** 아녜스 자매님, 그동안 부활행사로 뒤로 미루어오던 여행을 2 주간의 예정으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여행중에 모든 일 주님과 함께 잘 지내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 5월 귀국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여행 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만은 지킵시다.

미리 나누어 준 예정표의 성가를 계속적으로 아침에 연습하고 있어오니, 바쁘시더라도 아침 시간을 엄수하여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불편을 주님께 봉헌하며 환한 주님의 웃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복음 [요한 14,1- 12]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뵈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뵈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뵈게 해 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좋은생각" 중에서) , "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기 부러워 할 정도의 여유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에 조건을 알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만족을 모를 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

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사는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행복에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에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남과 비교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